

## 제4회 한국도서관협회장배

# 전국도서관사서테니스대회를 마치면서

김 휘 출

전국도서관사서테니스회 회장

hckim@hanyang.ac.kr



**요즈음** 사서에 대한 인식이 날로 좋아지고 있고 또 계속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고 국내외의 언론으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굳이 이런 뉴스가 아니더라도 사서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많다. 테니스를 15년 동안이나 즐기고 있는 필자는 따뜻한 봄날과 청명한 가을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땀을 함께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커다란 자부심이다.

전국도서관사서테니스대회는 처음 만난 사람과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같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동료와 파트너가 되기도 한다. 매년 40명~50명의 회원이 참가하며 1년에 2번의 대회가 열린다. 봄에는 한국도서관협회장배, 가을에는 전국도서관사서테니스회장배라는 대회로 개최된다. 2001년 5월에 시작된 전국도서관사서테니스대회는 비록 역사는 짧지만 매년 새로운 회원들이 많이 참가해 현재는 전체 회원이 약 150명에 이르고 있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하루 전에 전국 강호에서 사서들이 바람처럼 나타난다. 모두가 '사서의 밤'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서의 밤'은 그 동안 테니스 이외의 분야에서 쌓은 무공을 발휘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너무 가중치를 부여한

사서는 다음날 치러지는 본 대회에서는 자신의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사서들은 경쟁자를 의도적으로 ‘사서의 밤’에 꼭 참가시켜 다음날 경기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는 유언비어도 있지만 믿기 어려운 일이다. 대회가 시작되면 강호의 고수들인 만큼 신경전이 치열하여 코트내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평소에는 조용한 사서인데 코트에서는 강하고 멋있는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필자 스스로를 반성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대회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좀더 성숙해지는 것 같고 동시에 우리는 동료라는 것을 더욱 깊게 깨닫게 된다. 싸운 만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절실히 느낀다. 그러나 내일이면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이라 다음을 기약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 대회를 위해 멀리 목포에서, 대구에서, 강릉에서도 참가한다. 그 멀리서 왜 참가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테니스대회에 참가해 보면 왜 멀리서라도 참가할 수 밖에 없는지 그 의문이 해결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테니스대회에 참가하면 나와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살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함께 할 기회가 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